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周邊勢力調查研究—共產圈

西歐共產主義의 理論과 實際에
 關한 研究



研究執筆責任

柳 恩 相

(略歷) 서울大 文理大 外交學科 (1968)
 서울大 大學院 外交學科 (1974)
 서울大 大學院 外交學科 博士課程 (現在)
 空軍士官學校 教授 (1971~75)
 서울女子大學 專講 (1976~現在)

刊行責任

丁 世 鉉 (調查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1. 世界共產主義의 추세	1
2. 西歐共產主義의 理念的 側面	17
3. 結 論	34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1. 세계 공산주의 추세

레닌의 10월혁명이 6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세계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역할이 어떠한 것이냐의 그 전체상을 정립해 보면 여러가지 점에서 모순이 많음을 알게된다.

우선 군사적인 측면에서볼때 소련은 미국과 군사적열강으로서 대등하게 맞으면서 세계의도처에서 간섭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공도 그들의 주변지역에 확세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는 소련과 동구라파, 동남아, 북한 그리고 큐바 등지를 총망라한 이 공산국가群의 反西歐的인 영향은 제3세계의 비공산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는 유엔에서까지도 반서구적인 결의를 허다히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는 서구 몇개국의 공산주의 대중정당이 정권에 참여하는 판국이라 공산주의의 확세전망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위와같은 관점에서 보면 서방세계는 공산주의의 戰塵에 온통 감싸여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산주의의 諸類型은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소련의 관료·보수적인 체제유지가 서방의 左派系列에게 시범이 되어있는가하면 다른 한편 중공 화국봉체제의 불안정은 모택동론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공산주의적 제국민국가 내부에서의 계분쟁은 세계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예전의 통일성을 파괴하고있고 또한 직접 통치하지 못하고있는 제공산당에겐 독립적인 행동영역의 폭을

넓혀주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일본등지에
서 일당독재에 대한 레닌적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징조인 것이다.
사실상 혼란무비했던 지난 60년동안 민주적인 공업국가에서는 어
느 한군데에서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脱植民化라는
식민지의 해방투쟁에서도 월남이나 앙골라 같은데를 제외하고는 공
산주의자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시말하면 신생국가들이
서구사회를 시범삼지는 않았지만 결코 공산주의적인것을 받아들이지
는 않던것이 공산주의의 강점과 약점은 <업적과 실패>라고 말할수
있는데 레닌이 말한 이론과 실제의 두 근원에서 나오는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즉 하나는

① 서구적인 보편적 理想이 마르크스에서 나와 민주혁명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② 다른하나는 러시아의 국가지상주의적인 러시아적 혁명의
선서에서 나온 비서구적인 전통인 것이다. 1)

레닌주의의 러시아적 근원은 러시아와 중국의 근대화가 국세 확장
에 있어서 커다란 업적을 가져다주는 했지만 그러나 그세력이
결코 서방에까지 뻗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른한편 서구적 근원

註 1) R. Löwenthal, Kommunismus in der Welt von heute
(오늘의 공산주의), in : "Spiegel"
vom 25. April 1977, S. 186

은 시초에 「국제공산주의 독트린」을 만들도록 허용하기는 했지만 소련의 영도에 대해 늘 반발을 일으켜 왔다. 이것은 인터내셔널 시대가 잘 입증하며 또 근자에는 東歐공산블럭에서도 그러한 실예가 얼마든지 입증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적 이상주의는 제3세계가 소련의 발전모델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저지했다고 볼수 있다. 결국 러시아적 전통에서 나온 사회전환의 결정적인 기구로서의 국민국가는 자주적으로 발생한 공산국가 내부의 초민족적 질서확립을 불가능하게 했고 또 그들 상호간의 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것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혁명은 자본주의 최후단계에 도전했던것이 아니다. 그리고 低開發的이었던 早期단계의 산업사회도 온전히 서방세계의 산물이며 산업자본주의 발생도 역시 서구문명의 독특한 결과인것이다. 물론 19세기에 공업화를 이룩한 일본의 경우도 “위로부터의 혁명”을 필요로했지만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중앙집권주의를 통해 자본형성을 이룩했고 또 정치적인 대중교육을 통해 근대화를 이룩한 서구사회의 발전모델을 원용한데서 성취된 것이다.

서양의 중세처럼 다양하고 자유로운 행동영역이 민중에서 주어지지 않았던 러시아에서는 수백년동안 오직 통치자의 군사체제에 의한 사회발전 밖에 없었다. 러시아의 역사가 파울 밀류코프 (Pawel Miljukow)가 말했듯이 저 나라에 있어서는 사회보다도

국가가 중요했던 것이다. 2)

19세기 말엽 저 나라의 공업화에는 현저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의 정치사회는 민주적 발전의 시련을 도의시했던 것이다. 혁명이 발발하여 지주계급이 무너지고 볼셰비키의 승리가 대중소비를 억제하고 중공업위주로 눈부신 공업화의 기초를 다지기는 했지만 이것이 결코 계급없는 사회에로의 접근은 아니었다. 스탈린은 1930 년대에 자유대신 억압으로써 「피의 숙청」을 통해 1인 통치체제를 확립했었다.

소련정권이 스탈린의 공포정치와 히틀러의 처참한 침략전쟁을 극복하고난후 지금은 정상적인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셈이다. 즉 스탈린에서 브레즈네프에 이르면서 소련이 공산국가가 되었고 또 스탈린의 후계자들에 의해 새로운 발전단계에로의 재개혁이 단행되었는데도 저들의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집 단수복소가 많이 줄어들고 노동자와 농민의 수입이 많이 상승되었지만 공산지도자들은 의연히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다다를것을 역설하면서 그들의 권좌를 계속 굳혀가고 있다.

중국의 근대화는 험한 역정이었으며 아직도 이는 아주 힘겨운

註 2) Vgl. H. Pächter, Weltmacht Russland (세계열강인러시아),

München / 1970, S. 15

과업을 안고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 이전의 국민당통치는 한편으
론 공산당의 처 빨치산 투쟁, 다른한편으로 일본군대의 침략전쟁이
라는 어려운 여건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1949년의 집권에 이은 전쟁복구기에는 소련을 시범삼아 농업집
단화등 5개년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소련의 시범은 폭발
적인 중국의 인구증가라는 여건에는 맞지않는 것이어서 1957년
엔 마침내 이의 계속 추진을 중단하고 말았다. 그래서 중국공산
주의자들은 중공업을 최우선으로한 스탈린의 기본원칙을 배제하고
경공업과 농업의 병행적인 발전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만이 중국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발전책이라고 확신
했기 때문이다. 1958년 저들은 人民公社의 理想을 실현하기 위
해 조약운동을 단행했고 또 공업 및 농업집단화의 실현을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가족단위생활을 해체시키기도 했었다. 이때부터 중국
에는 훈련된 엘리트들에 의한 경제정책 시행이 있었고 또 Maoism
을 중심으로한 제발전책이 구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중공은 점차 중소분쟁에 들어서게 되었고 중공의 자주적인 주체요
인을 강요하면서 소련을 으뜸가는 敵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그후
중국공산주의는 미국과 제한된 협력을 하면서 제3세계에로의 확대
를 시도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경제난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어느
수준까지의 발전을 계속 끌고오고있는 상태이다.

러시아에 있어서 볼셰비키의 승리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마르크스적 召命하에 이룩된 것이었으나 서방사회에 있어서 그와 유사한 혁명은 1차대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영영일지않았다. 저때에 레닌은 서구의 혁명가들이 그 승리 방법을 볼셰비키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확신했었다. 그래서 그는 1919년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²을 건립했고 1920년에 모스크바의 지시하에 각국의 당을 동기구에 묶어두기도 했다.³⁾ 그런데도 그 후 여러당이 자꾸만 분열되어 나갔고, 각국공산당 지도자들은 그들나라의 노동자들로부터 인정을 못받았으며 특히 1929 - 1932년에 걸친 세계경제공황을 공산주의적 승리로 이용하지도 못한채 마침내 히틀러의 출현을 맞고 말았다. 소련이 히틀러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서구민주주의에 접근했을때에 서방의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전선"이라는 정책의 카테고리 안에서 소련과 협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탈린이 히틀러와 불가침조약을 체결했을때 서구공산주의자들은 다시 소련을 외면 했었다.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하고 또 서방측 공산주의자들이 모두 히틀러에 반하는 민족대열에 앞장섰을때 스탈린은 적지않은 서구공산주의측의 추종자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스탈린은 전후의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參政이 있기를 바랐지만

註3) H. Pächter, ebenda, S. 10 f.

東西冷戰이 시작되자 이러한 기대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물론 저때에 동구라파는 소련군 점령하에 공산화되었다. 동구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과 聯政했던 민주인사들이 숙청되고 또 스탈린이 동구제국의 마샬플랜 참여를 금하자 서구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 大罷業을 벌였으며 서구개진을 방해하려 들지도 않았다.

저때에 서독, 영국 및 스칸디나비아등지에서는 오히려 공산당세력이 아주 약화되었으며 프랑스나 이탈리아같은 나라에서는 추종자는 많았지만 공산당이 변덕스러운 반사회단체였기 때문에 저들나라의 政事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1956년 흐루시초프의 기본성명이 평화공존을 공포하자 민주주의 제국에서 비로소 공산세력의 고립이 해소되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통합의식이 비등해가는 서구의 비혁명적 상황에서는 이 고립된 혁명적 대중정당이 계속 살아남기 어려웠다. 이러한 영향력없는 당의 위치를 탈피하려고 맨먼저 몸부림친것이 이탈리아 공산당이였다. 그들은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의 폭정을 폭로하고 동구에서 계속 폭동이 일어날때 그들은 소련공산주의를 후진적 기초위에 세워진 사회주의형태라 해서 경원하기 시작했고 독자적인 서구사회주의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즉 독자적인 서구사회주의가 바로 유럽공산주의인데 이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권을 시도할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공산정부의 존립조차도 자유선거속에서

야당의 권리를 존중하는 서구적 민주주의에 걸어보겠다고 공언했다. 이탈리아공산당의 이러한 발전은 위로부터의 돌변적인 노선변경이 아니고 오랜동안의 공공연한 논의를 거쳐서 결과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후 이는 곧 스페인공산당에 영향을 미쳤으며 근래에는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에게까지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일본공산당도 이러한 서구풍조를 쫓아 발전해 가고있다. 半世紀 이상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 세계공산주의운동은 지금 두가지 사실을 두드러지게 들어내고 있다. 그 하나는 (현상의 二大特徵) 발전된 공업국가에서는 공산당들이 그 어느하나도 혁명을 통해 집권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나라들의 공산주의 대중정당이 "시민민주주의"와의 투쟁과정에서 레닌주의적 기본원칙을 저버린채 일당독재를 할려고 하지않는다는 사실이다.

결국 공산주의는 서구민주주의를 때로는 약화시키기는 했으나 서구의 어느 한 나라도 내적으로 그를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었다. 물론, 공산주의가 그의 확세를 통해서 非西方세계에 꽤 영향을 미쳤고 또 서구를 때로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속으로 몰아 넣기도 했다. 양차대전간의 상황만 보아도 소련공산주의와 서구공산주의간의 반목이

註4) H. Timmermann, Der historische Kompromiss
Aspekte und Perspektiven (역사적인 타협 7기대와 전망)
Berichte d. Bundesinstituts in Köln, 45/1975, S.
15 f.

아직 세계정치의 핵심이 되지는 않았다. 물론 저때에 러시아는 아직도 약했고, 후진적이었고, 고립되어 있었다. 나치주의자들이 집권하고 난후 히틀러독일과 소련 및 서방의 3者간에는 상당한 交互가 있었지만 마침내 팻쇼주의와 반팻쇼주의의 반목은 필경 대전쟁의 역사적인 결판속에서 세계를 분열시켜놓고 말았다.

그러나 스탈린이 2차대전을 극복하고 초대강국의 하나가 되자 상황은 달라져서 그는 중·동구, 즉 그의 세력권을 「엘베江」까지 확대했었다. 그리하여 그의 위세는 먼저 영국, 미국, 프랑스, 베를린 및 서독등의 자유를 위협했고 마침내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2개의 블럭으로 세계를 분단하고 말았다.

중국에 있어서 모택동의 승리는 공산블럭에 커다란 힘을 가져다 주었으며 미국의 핵무기 발전이 그 독점성을 상실하자 이제 분열세계의 난국극복이 오직 동서정치의 세력균형에 달려있는 판국이 되었다. 베를린분규가 있었고 동구에서도 많은 폭동이 일었지만 양블럭의 존속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쌍방이 분규를 제한하여 난국을 극복하려는 공동의 관심을 가지므로써 소위 긴장완화 추세가 대두되었던것이다. 양블럭의 패권싸움이 지속되지 않았던들 아마 이념분쟁도 크게 불붙지 않았을 것이다.

월남의 패망을 보자. 서방사회에 있어서 이념적 대립에 대한 관심이 점차 감소되자 소련에 있어서는 일당독재의 정통성이 오히려 이념적으로 더 확고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스탈린에서 브레즈네프로 권좌만 바뀌었을뿐 평화공존을 내세운 이념적 컨프런테이션에는 조

금도 변함이 없었다. 결국 이러한 권력정치적인, 이념적인 경쟁은 이념분쟁의 발상지라고 할수있는 유럽에만 퍼진것이 아니고 전세계에 번져서 지금 후진제국에게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고, 민주적인 진보 보다도 혁명적인 전환이나 반서방적인 이념의 전파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있다.

물론, 공산주의는 역사적인 탈식민화경향이 있었을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했다. 2차대전중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얻은 서방측의 경험이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또 공산세력의 침투에 반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쟁도 꽤 있었다. 식민지 해방이라는 스탈린의 도그마에 따르면 공산당영도하에 혁명이 발발했어야 하는데 필리핀을 자유로이 내주고, 인도대륙이나 여타의 대부분 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양했기 때문에 스탈린의 이론과는 아예 맞지않는 결과였다. 아프리카의 검은대륙 일부와 인도네시아 및 알제리아에서도 비공산주의적인 정치세력의 주도하에 식민지 해방전쟁이 강행 되었는데. 湖志明의 영도하에 월맹이 탈식민지화한 것은 특수한 예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사상은 식민해방이후 제 3 세계에 결정적으로 침투되었었다. 50년대의 중엽 스탈린의 도그마가 수정되면서부터 공산연강이 신생 국가들의 비자본주의적 발전노선을 권장하기 위해 서방과 경쟁을 벌였을때에 공산주의사상이 급진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곤 공산화된 나라는 「큐바」뿐이다. 그리고 비공산국가들은 비교적 작은 나라들이지만 그저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의 일부분이 결코 공산주의로 인해 반서구적인 발전을 하 세

되었다는 부정적 측면의 척도는 될수없다. 왜냐하면 비서구적인 문화와 사회구조를 가진 나라에 있어서 전반적인 발전이 서구형 시장경제제도에 의해서 이룩되고 또中央집권적인 발전계획이 필수적인 곳에는 그러한 영향이 크게 미치지 못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또 행동의 자유를 가진 서구형 민주주의가 대중빈곤이라는 조건하에서 활발한 발전을 아주 어렵게 했다고 하는 확실한 경험을 갖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않는 오랜이래 서구의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알고있다. 그리고 서방측의 제정부도 자유시장경제나 복합적인 민주주의는 후진국 경제원조 조건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것이었든, 아니든간에 그들의 독립된 발전을 쫓기 위해 원조를 얻으려하고 있다. 그들 엘리트층의 의식에는 러시아나 중국의 업적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 근대화의 모델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뇌리에는 어제까지 식민통치자였던 서방측이 오늘은 부채와 원료가격 등을 가감하여 계속 착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래서 후진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움직임은 용공적이든 중립적이든간에 숫자적으로 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신생국가중 서구형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드물지만 저들에게 서구형 모델은 거의 방기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저들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엘리트층에겐 서구적 가치의 매력 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이들 신생국가의 대부분이 반서구적 태도를 갖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서방사회는 그들의 제문제를 독자적으로 타결하는데 있어서 놀라우리만큼 그 수행 능력과 신축성을 보였으며 또 최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역시 그러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들 영역에 침투한 공산주의 운동을 계속 약화시키는

데도 그들의 底力을 보였다. 그러나 분단 세계의 폭력과 영향력을 통해서 뿌리를 형성한 공산권에 있어서는 공산주의가 계속 그 아성을 쌓아가고 있다. 즉 모든 가설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해서 하나의 統一世界가 존립하지 않는 지금, 세계질서는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전쟁 없이 폭력 행위를 제거하고 또 전쟁위협을 감소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실태는 문화에 바탕을 둔 공통의 도덕적 형태가 결여되어 있는데서 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적으로 분열된 세계인지라 적대국 상호간에는 지금 그러한 공통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방세계와 결리되어 있는 제 3 세계에도 역시 그러한 도덕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분열현상은 유엔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예컨대 국제적인 테러 방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사항마저도 잘 의결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립 감정에서 오는 도덕적 결여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세계의 분단에 귀착되는데 유럽중심적인 세계질서의 바탕을 파괴한 저 공산주의가 하나의 세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야기된다. 지금까지 발전해온 공산주의의 경륜을 볼 때 공존을 위해 납득할 만한 규범을 세우는데는 공산주의는 역시 무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지난 4 반세기에 있어서 공산국가 상호간의 분규는 諸서방국가간의 양상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었다. 西歐나 北美 및 일본과 같은 공업화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이론에서 본다면 저들의 자본주의적 성격이 바로 모든 국제분규의 근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들

상호간의 분규는 사실상 그렇지 않았었다.

그러나 소련은 스탈린하에서 군사적인, 경제적인 억압을 자행했고 또 거창한 선전을 통해서 유고의 공산체제를 타도하여 고도 했다.⁵⁾ 그리고 또 소련은 1956년 헝가리공산당의 수정적인 경향을 억압했고 또 1968년에는 체코공산주의자들을 군사적으로 강압했었다. 그는 또 중국공산주의자들과도 의견차이 때문에 상호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력적인 국경분규와 군사적인 대치를 계속이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독단적으로 그들의 주장만을 정당화하는 데에 있는바 이것이 바로 일당독재의 비관용성인 것이다. 물론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의 정통성에 도전하면서 이념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변명해오는 맹방이 수다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라면 소련이 레닌과 스탈린적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하겠다. 다시말하면 레닌적, 스탈린적 전통이 국민국가(nation state)와 그 권력을 사회전환의 결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고 또 공산당이 그 약속을 실현하는 것만이 결정적인 보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朋黨과의 충돌이 빈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자리에 보편적인 국제주의가 군림했고, 또 많은 공산주의적 통치영역에서 이념의 허물을 배타주의가 亂舞 하는 것이다.

하나의 세계질서란 諸국가의 통치권내에서 諸민족과 諸사회를 하나

註5) V. Dedijer, *Stalins verlorene Schlacht* (스탈린의 패배한 싸움), Wien/1970

로 묶은 바탕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를 절대시하는 한 체제는 그러한 질서를 결코 낳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념을 위주로한 국제적인 통일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국가보다도 집권자의 권력구축에 이용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세계공산주의 운동은 티토와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파열되었고 그리고 중·소분규 속에서 소멸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모스크바의 규율에 의해 소멸해간 정당들이 재생하여 새롭고 완전한 자치를 통해 진보적인 諸 조건하에서 더 이상 레닌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이른 것이다.

공산주의는 몇몇의 非서구민족에게서 다소 성공적으로 진파되었고 또 비서구적인 억압을 통해서 어느정도까지 근대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저들에게 서구세계보다 자유와 평등을 덜 주었고 억압—辺倒로 불평등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는 결코 계속적인 영향을 미칠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적인 독재로 세계를 분열시켜 놓았고, 또 대부분의 해방된 식민국가로 하여금 서구적 발전의 모델을 갖지 못하게 했을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의 기본가치까지도 못갖게 하고 있다. 결국 공산주의는 예전의 서구사회에 의해 이룩된 세계질서의 기저를 매장시켜 버린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공산주의는 지금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해 도의적인, 문화적인 기초를 확립하는 데에는 완전히 그의 무능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지금 민족적인 근대화와 국가권력의 추진력으로서 작용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의 본질과 파괴의 추진력으로서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인간사회의 非人間化와 세계의 평화를 저해하는 커다란 요소가 되어 있다.

공산주의가 지금 우리 시대를 엮어가는 역사세력의 하나이긴 하지만 마르크스가 내놓았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태년에 의해서 확립된 방법의 관철을 위해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공산주의가 결코 미래에 있어서 햇빛을 볼 이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진보된 민주주의만이 여러관점에서 밝은 앞날을 갖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나 정치적인 분규를 초극하는데 있어서나 또는 문화교류를 위해서 민주주의만이 밝은 앞날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이 민주주의는 비판적인 제사기의 단점을 초극하기 위해서 그의 창조적인 힘을 계속 발휘해왔고 인도적인 기본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리들은 지금 공산주의가 그의 어떠한 한계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는 그 역사적인 성격을 바꿀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필자는 서구나 일본에 있어서도 그러한 변화가 일한다고 생각지 않으며, 설혹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공산당은 이제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공산당이 아니리라고 확신한다.

만약 러시아나 東歐에 있어서 그와 비슷한 변화와 사회적 전환이 온다면 이는 근대화의 성공적인 최종 결과로서 바람직한 케이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환은 결코 마르크스의 법칙성에 입각해서 강제적으로 収斂化된 데에서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는 어디

까지나 사회조직의 높은 단계를 향하는 소련블럭의 진보를 위한 조건일 뿐이고, 또 역시 공산세계의 통일을 再現하기 위한 조건일 뿐일 것이다. 그러기에 이 조건이 과연 충족될 것인지 어떨지는 아직 아무도 무엇이 라고 말할 수 없는 판국이다.

2. 유럽공산주의의 이념적 측면

1848년 K. 마르크스와 F.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내면서 공산주의라는 약령이 지금부터 유럽천지를 휩쓸것이라는 말을 한적이 있다.¹⁾ 그러나 1880년의 修正論争期와 1차대전 이후 각국공산당 건립시를 제외하곤 공산당은 비교적 잠잠했다가 오히려 오늘날에 와서 새삼 유럽공산주의의 망령이 대두된 느낌이다. 그런데 이 망령은 반동적인 부르좌들의 망령이지 프로레타리아 공산주의 그 자체가 망령이 아닌 느낌이다. 전후의 사조를 되돌아볼때, 동서체제가 그 나름으로 안정되면서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지금 하나의 좌파이념이 시민적 민주주의하의 사회질서와 통합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스위스의 철학자 A. 쿤츨러(Künzli) 교수 같은이는 “정통적 마르크스 주의자와 시민사회의 보수주의자들에게 똑 같은 사유 경향을 준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²⁾ 이탈리아의 공산당수 베를링거, 프랑스의 공산당 지도자 마르세 그리고 스페인의 아주 영리한 공산당수 카를로등을 앞장세운 유럽공산주의자들은 지금 보수적 공산주의인 소련의 모델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 들고있다. 포르투갈의 사회당수

註 1) H. Holborn, Deutsche Geschichte in der Neuzeit, 2. Band (近代 독일史), München/1970, S. 287 f.

2) Der Eurokommunismus - seine Ideologie und seine Widersacher (유럽공산주의 - 그 이념과 反抗者들), in: "Spiegel" vom 16. Mai 1977, S. 150

M. 소레 (Soares) 는 “우리들은 유럽공산주의를 과소평가 하지 않는다. 이것은 2차대전 이후 유럽에 출현한 하나의 중요한 사상 조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³⁾ 이 운동의 종말에는 전환기적인 필시 많은 외아한 점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엔 사회주의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보는것이 많은 유럽 지식인들의 견해이다.

유럽공산주의자들은 그들 상호간에 민족적 차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는 그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1. 의회민주주의의 다수결을 인정하며, 선거의 승패여하에 따라 권력을 인수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2. 민주주의의 기본인 자유와 다양한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것 이고 3. 생산방법에 있어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사기업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제도를 수락한다는것, 4. 소련의 모든 지도적 요구를 거부한다는것 등 네가지이다.⁴⁾

이러한 모든것이 크게 논의되고 있는 지금 스페인 공산주의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서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포기한다고 당강령에서까지 밝히고있다.⁵⁾ 마르크스주의의 선구적인 지도자중 어느 한사람도 “일당 독재”안을 발전시키지는 않았으며 다른 당에 대해 공산당이 특권을

註3) Spiegel vom.16.Mai 1977, ebenda, S.150

4) Spiegel vom 16.Mai 1977, ebenda, S.150

5) S.Carrillo, Eurokommunismus und Staat,

Hamburg / 1977, S.108 f.

갖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그들의 주장을 변명하고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 스페인 사람들은 레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으며, 또한 그를 마르크스주의의 선구적 지도자중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유럽공산주의자들의 代案은 사회의 급진적인 변환을 목적으로 하되 이것을 점진적으로 주민 대다수의 찬동을 얻어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공산당수 마르세 (Marchais)는 지난번의 당대회에서 단계적 발전을 월반하는 식의 도약행위는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대다수와 수적인 다수가 계 단계에서 모두 완전히合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⁶⁾

정치적인 다수로서의 대다수는 수적으로는 열세에 있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시민적 개념의 혼란역할을 지적한 레닌의 주장이었다. 소련의 사상가 K. 사로도프 (Sarodow)는 유럽공산주의자들을 경고하면서 레닌주의자들에게는 다수라는 것은 수학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정치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한바 있다.⁷⁾

“서유럽의 개혁공산주의자들은 지금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을 견지하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고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혁명적인 상황은 없다”라고 이탈리아 공산당 간부

註 6) Spiegel vom 16.Mai 1977, ebenda, S. 151

7) Spiegel vom 16.Mai 1977, ebenda, S. 151

인 G. 아멘돌라 (Amendola) 는 말했다 그리고 “쟁취한 것을 위태롭게 하지 않은채 보다 나은것을 위해서 싸우자”⁸⁾ 라고 그는 그의 동지들에게 역설 한바있다.

스페인 공산주의자들도 그들의 강령에서 “자본주의 선진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는 논리정연하게 사회주의의 발전형태를 이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마침내 동구 여러나라의 사회주의 까지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⁹⁾

서독 뢰른공산권문제 연구소의 정치학자 H.Timmermann 은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질적인 향상”이 바로 이 유럽공산주의 속에 보인다. “사회주의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시민민주주의 혁명의 결과는 없어지지 않고 더 확고히 기본적인 가치로써 인정되고 또 계속 발전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⁰⁾

註8) Spiegel vom 16.Mai 1977, ebenda, S.151

9) S.Carrillo, ebenda, S.10

10) H.Timmermann, Moskua und der europäische Kommunismus nach der Gipfelkonferenz von Ost-Berlin.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東베를린 회의 후의 모스크바와 유럽공산주의), 9/1977, S.43

위와같은 저들의 주장으로 미루어 보면 유럽공산주의자들이 언젠가 한번 집권 한다면 그들은 개혁강령을 제한하게 될것같고 또 더 이상 혁명정당일려고 하지 않을 것같이도 보인다. 그러나 보수계의 政敵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회주의적인 동료국가들도 이를 원하지 않을것이다. 서구공산주의의 비판자들에게는 개혁공산주의자들이 붉은 별을 달고 망치를든 능소능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로 보일 뿐이다. 1945년의 종전 무렵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에게 자유와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를 부여하여 하나의 의회민주적인 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일을 소련체제에 묶어두는 것이 잘못이라고 볼 때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무역의 제재 없는 발전을 도모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사기업의 주도권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11)

그리고 또 스탈린 격하운동이 선언되었던 1956년의 제 20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N. 후루시쇼프는 서구공산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에 이르는 의회민주주의 노선을 허용 선언 했었다. 12) 고전적인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로 전환되는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인데도 후루시쇼프는 의회

註 11) Siehe H. Weber, Die DKP-SED an der Macht (독일공산당과 사회주의 통일당의 집권), Köln/1964, S. 435

12) Der 20. Kongress der KPdSU (제 20차 소련공산당대회), in: OSTEUROPA, 3/1956, S. 190 ff.

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러한 수정 노선을 밝혔던 것이다.

그리고 또 사회민주주의의 시조들이라고 하는 P. 베른슈타인과 K. 카우츠키같은 이도 이미 저때에 좌파이론에 있어서의 혁명개념을 거부 했었다. 13)

그런데 레닌은 이를 마르크스의 자유주의를 날조한 세기적 기록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정통파 레닌주의자들에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입장에서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렇게 커다란 역할을 하는것이 아니었다. 마르크스는 그의 많은 저서 가운데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11번 밖에 쓰지 않았다고 한다. 1852년 3月5日 마르크스는 J. 바이테마이어(Weydemeyer)에게 낸 서한에서 “내가 새로이 징병할 수 있는것은 계급투쟁은 필요에 따라선 프롤레타리아 독재에로 이끌린다는 것이다” 라고 했다. 14) 그후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에 이르는 도정이 의회주의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었다. 15) 그러나 레닌의 입장은 달랐다. 마르크스에 의해서 “모든 계급을 지양하는 과도기”라고 생각했던 <형태>를 레닌은 볼셰비키의 당독재에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1917년 레닌은 말했다. “우리당은 다른 모든당과 마찬가지로

註 13) S.Carrillo, ebenda, S. 153

14) Spiegel vom 16. Mai 1977, ebenda, S. 151

15) Spiegel vom 16. Mai 1977, ebenda, S. 151

가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 한다.¹⁶⁾ 그러나 그후 1년이 지나서 그는 주장하기를 “볼셰비키의 소련민주주의는 일인독재와 귀합할수 있다.”고 했었다.¹⁷⁾

소련의 실제 정치를 보면 프롤레타리아인 인민 대다수의 독재는 소수가 이끄는 한 당의 독재로 전락했고 그리고 마르크스가 뜻했던 것과는 달리 <과도기>로서가 아니고 지속적인 상황이 되어있다. 신생소련국가가 일당 독재로 안정이 되고 난 후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립자中 한 사람인 그람시(Gramsci)는 “독재개념”을 “주도권”이란 말로 바꾸어 놓은 바 있다.¹⁸⁾

그러나 2차대전¹⁹⁾이 끝난 후 유럽의 커다란 공산당들은 독재라는 도그마를 비로서 제거했는 바 지난해 2월에 프랑스인들이 그들의 제2차 당대회에서 이를 재 확인한 바 있다. 즉 “12년전에 지금의 프랑스 공산당수 마르세가 당대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문제삼고 이를 시민민주주의 노선으로 이끌기 시작했는바 이를 재천명 했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시민민주주의 노선에서 있는 것이냐가 문제 되는데 사실상 프랑스공산당은 지금 독재를 포기하고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전환을 추진하되 사회주의자와의 인민전선을 형성한 정부에서도 그들의 주도권을 내세울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자들이 당의 status를 당의 조직 구조라고 말하는데 반해서 레닌은 이를 “민주적인 중앙주의”라고 일컫고 있다. 하여간 마르크스의 많은 논저에는 이 당개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또 그들의 추종자들도 독자적인 당을 형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공산당선언>에도 써있다.¹⁹⁾ 결국 이들의 당에 대한 관념은 레닌이 그의 생존시에 “「Elite 당」은 군사적으로 엄격히 조직되어야 한다”라고 한것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이다. 레닌은 말했다.

註16) S. Carrillo, ebenda, S. 165

17) Spiegel vom 16. Mai 1977, ebenda, S. 151

18) Spiegel vom 16. Mai 1977, ebenda, S. 151

19) S. Carrillo, ebenda, S.

“철통같은 임적태세를 갖춘 당이 없이는 계급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가 어렵다. 무조건의 중앙집권주의와 프로레타리아의 엄격한 규율은 부르좌를 이기는 주된 조건이다.”²⁰⁾ 라고,

스페인 공산당은 수십년 동안 그 훌륭한 당조직으로 통해서 지하운동을 전개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당수 카틸로는 아직도 이 “민주적인 중앙주의”를 저버릴려고 하지 않는다. 프랑스 공산당도 역시 얼마전까지도 레닌의 기본원칙을 높이 평가했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자들 처럼 결코 [Salon 당]은 아니다.”²¹⁾

라고 프랑스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자인 R. 앙드류(Andreu)는 말한 바 있으며 작년 2월 슈피겔誌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적인 중앙주의를 분명히 두둔 했었다. 역사가이며 프랑스공산당의 정론가인 J. 엘린 슈타인(Elleinstein)도 민주적인 중앙주의를 더 민주화 할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²²⁾

註 20) H. Brahm, Trotzkijs Kampf um die Nachfolge Lenins
(레닌의 후계권을 에워싼 트로츠키의 争鬪), Köln/1964
S. 64 f.

21) Spiegel vom 16. Mai 1977, ebenda, S. 153

22) Spiegel Interview mit Ellenstein, in: Spiegel vom
16. Mai 1977, ebenda, S. 161

그러나 이들 프랑스인들 보다 더 앞서 있는것이 이탈리아인 들이다. 1975년 봄 이탈리아 공산당원들은 소련을 시범삼아 36명으로 구성된 당 정치국을 하나의 이사회로 바꾸어 놓기도 했다. 지금 그들은 민주적 중앙주의의 부실한 부면을 당규를 통해서 수정해 가고 있다. 당 진로의 투명성에 있어서도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들은 다른나라의 유럽공산주의자들 보다 앞서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 공산당은 이탈리아 제정당 가운데 맨 먼저 75년도의 회계년보를 공표하고 26억8000만리라의 수입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들의 "Almanacco PCI"에 고위 당직자의 전명단을 발표 하기도 했다. 23)

소련공산당이나 그의 동맹국들에겐 서구공산당의 이러한 이념적 침식이 전유럽안보회의 결의보다 더 큰 위협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유럽공산주의적 새로운 이념은 자본주의적 사회의 부산물로써 세 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지금 공산당의 논저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사회주의의 이름아래 동구라파에까지도 침투하고 있다.

헝가리의 당기판지 "Társadalmi Szemle"誌는 한때 유럽공산주의

註 23) H. Timmermann, Aspekte des Wandels bei den italienischen und französischen Kommunisten (이탈리아 및 프랑스공산주의자들의 전환전망),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in Köln, 10/1976, S. 10 f.

자들을 수정주의자라고 했고 “혁명적인 세세력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다.²⁴⁾ 왜냐하면 개혁공산주의자들은 민주적인 중앙주의의 과업을 가지고 최근엔 레닌이 예전에 각국 공산당에게 내놓았던 도합 21 조건을 종국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이다. 공적으로 보면 코민테른은 공산주의적인 세계혁명을 준비해야 했지만 실제에 있어선 그것은 독일의 정치학자 N. 로프코비취 (Lobkowitz) 가 말한 바와 같이 근대 의교사에서 엄연한 하나의 권력기구역을 했으며, 또 러시아 통치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하나의 공산주의적 확대정책을 구사 했었다.²⁵⁾ 코민테른 공산당은 저때에 모든 소련의 제의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는 무력 침공의 위협을 당했다.

1932년까지만 해도 프랑스로공산당은 소련의 命에 의해 그들의 총서기장과 코민테른 대표자를 선출했었고 또 창립당원을 포함한 전당원을 제명 하기도 했다. 철학자이며 동시에 스탈린주의의 끝수분자인 알트후서 (Althusser) 가 말한 바와 같이 프랑스로공산당은 서구에서 가장 성실한 親露黨이었고, 그들의 독자적인 바탕을 모두 상실해 버린 親露집단이었던 것이다.²⁶⁾

히틀러와 스탈린간에 조약이 체결되고 난 후 1939년 전쟁이 발발하자 모스크바는 프랑스의 동지들에게 군복무 거부를 강요 했었다.

註 24) Wissenschaftlicher Dienst SUDOSTEUROPA, H.3/1977, S. 67

25) Spiegel vom 16. Mai 1977, ebenda, S. 153

26) Spiegel vom 16. Mai 1977, ebenda, S. 153

저때에 프랑스공산당 기관지는 독일 점령군에 의해서 인쇄 금지를 당하기도 했지만 프랑스공산당은 오늘날까지도 소련공산당과의 초기 협력만을 환상하면서 독일인을 증오하고 있는 것이다.²⁷⁾

1943년 5월 스탈린은 서구 열강의 호감을 사기 위해 코민테른을 해체했었다. 그리하여 그 후속기관으로써 코민포름이 형성되었지만 당조직의 규율은 코민테른처럼 엄하지는 않았다.

서구공산당의 변질과정을 긴 눈으로 볼때 동구라파 이외의 공산당들이 모두 이질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흐루시초프에 의해 스탈린 격하운동이 행해지고, 또 코민포름이 해체된 때부터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후 줄곳 모스크바가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중추국이 될수있었던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가 아닌가 싶다. 60년대 중엽 이후 소련의 당지도자들은 능블릭 이외의 공산당 지도층에게도 계속 그들 소련인의 영향력을 구사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앙위 서기국의 국제분과가 당론가이며 동시에 중앙위 서기장인 보리스·포노마조프(Boris pomonarov)에 의해서 영도되며 또 이가 당의 핵심분과위로서 자본주의적인 국외 공산당을 잘 이끌어가고 있기때문이다. 들쭉는 몇몇의 소련해외공관 실력자들은 각기 그곳의 공산당과 비공식 접촉을 계속 꾀하고 있으며, 세계 통상분야의 대표자들은 동구교역을 시도하

註 27) Spiegel vom 16.Mai 1977, ebenda, S. 154.

는 나라의 공산당과 노련한 접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合理化하는데 있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고 하는 레닌의 말이 잘 이용되어 있다. 최근의 중앙위 회의에서도 브레즈네프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주된 원리의 하나라고 지칭한바 있다.²⁸⁾

서유럽인들은 이 “주된 원리”라는 말을 도외시하고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를 내세운다. 스페인공산당 카틸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이미 소멸·심판을 받은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보고있다.²⁹⁾

근 2년 가까이 소련은 전유럽공산당의 정상회담에서 국제주의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하여 유럽공산주의자들과 협상 했다. 이 회의가 1976년 여름 마침내 동베를린에서 열렸을 때 29개의 유럽공산당 대표들은 각기 당의 독립·주권적 바탕위에서 自意에 의한 국제협력과 유대를 피한다는데에 의견을 모으고 타협적인 결의를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유럽공산주의자들도 그들의 관점 하나는 관철시켰는 바 그것은 다름 아닌 고전적 용어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마르크스, 엥겔스 및 레닌의 諸思想”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다.³⁰⁾

註 28) B.Lewytkyj, Zur Auseinandersetzung mit dem Eurokommunismus in der UdSSR(소련에 있어서 유럽공산주의와의 대립에 관하여),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in Köln, 16/1977, S. 38 f.

29) S.Carrillo, ebenda, S. 170.

30) H.Timmermanns Aufsatz BBI., 9/1977, a.a.O., S. 11

同회의가 끝난후 예전의 프랑스공산당 정치국원인 Roger·Garudy
 는 이 회의의 결과를 소련지도층의 커다란 정치적 패배라고 특징지
 윳었다.³¹⁾ 저 회의에서 소련人들은 최소한도 그들의 통치권에 변화
 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타협을 불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同회의 이후 5개월이 지나서 브레즈네프가 루마니아를
 친선 방문했을때 그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말을 새삼 공동
 성명에서 사용했었다.³²⁾ 그리고 또 1976년 2月 소련공산당대회에
 서 브레즈네프는 이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쇠미를 한탄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세계의 실제 정치가 사
 실상 국제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해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브레즈네프가 “우리들 소련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수호가 모든 마르크스주의 및 레닌주의자들의 중대한 의무라고 본다.”³³⁾
 라고 했는데 이말은 소련인이 東歐를 하나의 사회주의적 국제
 주의에 묶어서 소련 통치권에 계속 예속시키고 또 이념적으로도
 한결같이 소련 노선을 따르도록 시도함을 뜻한다. 同회의에서 사
 회주의의 모델을 특징지우는 문제에 있어선 아주 심한 언쟁이 오
 고 간것같다. 소련인들은 그들의 現사회질서를 바로 “현실적인
 사회주의”라고 하고 유럽공산주의 노선을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
 난했다. “현실적인 사회주의란 참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적 사회

註31) Spiegel vom 16.Mai 1977, ebenda, S. 154

32) OSTEUROPA, Heft 4/1977, S. A 191 f.

33) Spiegel vom 16.Mai 1977, ebenda, S. 156

체제와의 同義語라는 새로운 도그마를 정의한 불가리아공산당 정치국원 Alexander Liloff 를 앞에 내세워 유럽공산주의자들을 무마 시도 하기도 했다. 34) 이에 반해서 유럽공산주의자들은 東歐의 이념이 민주적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었다. 35) 프랑스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를 저버린데 대해 불가리아 공산당수 Todor Schiwkoff 는 反소적 주장의 위험성을 경고 36) 했는 바 이러한 협박은 예전의 티토와 스탈린간에 알력이 생긴 마지막 국면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작년 말에 친소파인 동독의 정치국원 Hager 가 "우리에겐 다만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적 진로와 Biermann, Havemann 이 말하는 것과 같은 유럽공산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진로간의 一뿐이다. 37) 라고 말한적이 있다. 유럽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동등시 하는것은 서구의 개혁공산당에겐 千萬不當한 異論이다. 왜냐

註 34) Monitor-Bericht der dt.Welle vom 11.Juli 1977, S. 3 ff.

35) H.König, Moskau und die kommunistische Weltbewegung heute (모스크바와 오늘의 세계공산주의 운동), in: OSTEUROPA, 12/1976, S. 1097 f.

36) Sonderlieferung der MONITOR-Redaktion der Dt.Welle in Köln, Mai 1977, S. 27 f.

37) Havemanns Regime-Kritik, in: SPIEGEL vom 6.6. 1977, S. 170

하면 이념적으로 볼때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主敵인 것이다. 결국 동구공산주의의 이념적 대립은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그 ①은 유럽공산주의자와 東歐의 국가사회주의자(staatssozialisten)들이 화해 될것이나 하는 점이며 ②는 소련인이 이를 분열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고 ③은 이 3자가 모두 화해될것이나 하는점이다.

서구공산주의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브레즈네프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서구공산당 담당원 포노마르조프(Ponomarjow)는 금년 봄에 통상문제를 확대시도했었으나 별 효용이 없었다. 유럽공산당 지도자들인 Carrillo, Marchais, Berlinguer가 마드리드에서 회합하기 직전 이탈리아 공산당수는 東歐공산당이 그들의 민법학자들을 좀더 정중하게 대우한다면 우리들 유럽공산주의자들은 反소적인 도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러시아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38)

위와같이 유럽공산주의자들이 反소적인데 반해서 동구권의 반응은 비교적 미온적이다. 동료국가의 이같은 반응에 불만을 가진 포노마르조프는 프라하의 중앙위서기장 Vasil Bilak에게 “너희들은 그토록 무능하느냐”³⁹⁾ 라고 공박했다고 한다. 즉 이것은 공산권의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불필요한 反체제 인사와 유럽공산주의자들에게 좀더 강경하게 대처할 수 없느냐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註 38) Spiegel vom 16.Mai 1977, ebenda, S. 156

39) Sonderlieferung der MONTOR-Redaktion, a.a.O., S.30

Vilak 은 "우리들은 결코 국제주의의 계급투쟁 노선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유럽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피하지도 않을 것이다" 40) 라고 했다고 한다. 그에 이어서 지난 3月 12日 프라하의 당지도층은 이탈리아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의 당기관지 Rudé právo를 통해서 민법학자들에 대한 제제가 좀 지나쳤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공산당 중앙위원들은 그들이 동구권의 자유화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소련인과의 형제적 유대를 더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 했다고 한다. 41) 크레믈린과의 공적인 관계가 악화 된다는 그 자체는 잘못이요 또한 주권의 원리와 이념적인 自治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물론 유럽공산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反체제의 대열이나 Roger Garaudy 편에 선다면 対소관계는 더 악화 될것이 뻔하다. 그러나 그 반면에 소련인들이 개혁공산주의자들을 징계한다면 서구공산당의 対소관계가 더욱 악화될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소련공산당은 이미 1970년에 스페인의 카탈로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해 징계 시도했는데 저때에 크레믈린 지도층은 예전의 스페인공화국 군의 장성이었던 E.Lister 장군 지휘하에 반당 행위를 했다는것을 구실 삼았었다. 그러나 소련의 이러한 분열시도가 효용이 없자 브레즈네프는 1974년에 카탈로와 다

註 40) Sonderlieferung der MONITOR-Redaktion, a.a.O., S.30

41) Spiegel vom 16.Mai 1977, ebenda, S. 156

시 우호관계를 회복했었다. 42)

“소련은 그 자신이 모든 이론적인, 정치적인, 아니 군사적인 방법
까지도 동원하는 유일한 당이고자 할 것이다” 43) 라고 예전의 공산
주의자이며 프랑스의 女流史家인 Annie Kriegel은 말한적이 있다.

“소련공산당이 바로 프랑스공산당이고자 하는 것이 소련의 책략이
다”고 내다 본 그녀의 말을 새겨보면 프랑스 공산당이 지금 脱
소경향에 있는것은 아주 분명하다.

註42) H.Königs Berichte, in: OSTEUROPA, 12/1976, ebenda,
S. 1089

43) Spiegel vom 16.Mai 1977, ebenda, S. 158

3. 結 論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이후 세계의 각처에 공산당이 건립되었지만 그 공산당들이 직접 집권해서 사회주의적 국가 건설을 하기 시작한것은 대개 2차대전 이후이다.

東歐의 공산화 과정을 보면 유고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나라가 소련군이 진주한 조건하에서 소비에트化했다. 즉 유고만이 소련군의 직접 지원없이 토착공산주의자들의 內戰승리를 통해서 집권했을뿐, 여타 제국은 거의가 소련 군대의 주둔하에서 소위 「소비에트化 3단계」¹⁾를 거쳐 정권을 장악했었다. 물론 東獨의 경우는 패전으로 인한 국토분단하에서 소련으로부터 강요된 소비에트化였으니 위의 여러나라와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공산화의 類型을 논한다면 東獨이 우리 北韓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다. 즉 北韓은 국토분단하에서 소련으로부터 강요된 명색 「偽裝 3단계」 과정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든 것이다.

北韓의 공산화 과정을 보면 소련은 北韓지역을 점령한 후 먼저 공산정권을 수립시켰고 그 후에는 北韓에 소련이 원하는 통제 체제

註1) 소비에트化 3단계란 다른정당들과 순수히 연립정부를 형성하는것이 제1단계이며, 제2단계는 공산당이 이미 실권을 장악한 명목상의 연립정부 형성기이고, 제3단계는 공산당의 一黨독재가 행해질수 있는 一元化체제 확립단계이다. 金甲喆, 北韓의 主体思想에 관한 研究, 1976, P. 51 참조.

를 확립하고서 이를 衛星國化했었다. 결국 北韓의 공산화는 순전히 불세비즘에 바탕을 두고 이룩되었을뿐 제 정권이 공고화되기까지 Maoism의 영향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1950년의 동란 당시 중공의 도움을 받은바 있는 北韓은 중·소사이에서 원할한 等距離 政策 (SchaukelPolitik)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눈을 떴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1955년 말에 비로소 「주체사상」을 들고 나왔다. 2)

김일성이 「사상에 있어서의 주체」를 제창한것은 종주국인 소련의 사상체제는 물론이고 여타의 조종과 지령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겠다는 표시였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그는 이 주체사상의 제창이 곧 민족공산주의의 주장으로 오인될까를 우려한 나머지 「국제주의와 애국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과, 또는 「소련의 이익이 「조선」의 이익과 같다」는 등의 변명을 했었다. 3)

주체사상이 개념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제요인을 보면 사상에 있어서의 「주체」, 內治에 있어서의 「자주」, 경제에 있어서의 「자립」, 국방에 있어서의 「자위」, 외교에 있어서의 「자주」등인바

註2) 김일성 저작선집, (1967), 1, PP, 560-585의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함에 대하여」.

註3) 김일성선집, 4, (1960), PP. 337-338

이는 총체적으로 한 민족의 자주노선을 뜻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김일성이 지금 주체사상에 입각한 민족의 자주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고취하면서도 이가 반듯이 민족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소련의 질시를 두려워하는 때문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필자는 이미 위에서 언급했지만 주체사상에 입각한 北韓의 정치노선은 중·소를 향해 좀 더 신축성있는 等距離 政策을 구사해 보겠다는 소위 그들 정치의 합리화 시도인 것이다. 이 같은 정치노선을 동구권과 비교해 보면 김일성 정치가 포지티브하게 발전할 때엔 마치 루마니아 같은 노선에 들어스겠지만, 네가티브하게 발전해 갈 때에는 알바니아의 四寸役밖에 할수없는 꼴이 된다.

이념적으로는 소련에 다 가서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觀中共경향에 있는 北韓이 김일성 유일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니 이는 스탈린 死後 개인승배를 이념화한 가장 악란한 공산주의 국가라는 지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김일성이 유럽공산주의를 논평한것을 보면 그는 서구 공산당의 자주적인 이념노선을 지지하고있다. 의회민주적인 투쟁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시도하겠다는 서구공산당의 진로를 김일성이 지지한것은 그가 진정으로 그러한 공산주의 투쟁방법을 흠모해서가 아니고 다른 정치적인 복선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百步를 양보해서 그의 찬성을 이해해준다면 한가지 점은 이해가 된다. 즉 서구공산당이 서구사회가 처한 역사적 여건에 적응하여 독자적인 투쟁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찬성한것은 김일성도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 유일 체제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현 北韓 체제의 합리화
책략인 것이다. 그 점 이외에는 김일성의 서구공산당 찬양은 순전히
정략적인 것이다. 첫째는 서구공산당의 이념노선을 반대하는 소련에
대해 간접적으로 거부를 표시한 것이며 그 반면에 중공에 대해서는
동조를 표시한 셈이 된다. 왜냐면 중공은 서구공산당의 자주노선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공산당의 이념 그 자체는 北韓에겐 사실상 아무런 흥미가
없다. 다만 北韓이 노리는 것은 서구공산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구접촉을 가속화하여 경제·문화교류 등을 활발히 갖겠다
는 야심의 총족뿐이다.

參 考 文 獻

- 1) H. Bram, Trotzkijs Kampf um die Nachfolge Lenins(레닌의 후계권을 에워싼 트로츠키의 斗), Köln/1964
- 2) S. Carrillo, Eurokommunismus und Staat (유럽공산주의와 국가), Hamburg/1977
- 3) H. Holborn, Deutsche Geschichte in der Neuzeit, 2. Band 1790-1871(近代 日史, 제 2 권 1790-1871), München/1970
- 4) B. Lewytzkyj, Zur Auseinandersetzung mit dem Eurokommunismus in der UdSSR(소련에 있어서의 유럽공산주의와의 對立에 關하여),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16/1977
- 5) H. Timmermann, Aspekte des Wandels bei den italienischen und französischen Kommunisten. (이탈리아 및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의 전환희망)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in Köln, 10/1976
- 6) - Moskau und der europäische Kommunismus nach der Gipfelkonferenz von Ost-Berlin
東베를린 頂上회의 후의 모스크바와 유럽공산주의)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in Köln, 9/1977
- 7) H. Weber, Die DKP-SED an der Macht(독일공산당과 사회주의 통일당의 집권), Köln/1964
- 8) Spiegel (15. 5. 1977)
" (6. 6. 1977)

9) Osteuropa(東歐誌) - 3/1956,12/1976,4/1977

10) Südosteuropa(東南歐誌) - 3/1977

11) Monitor-Bericht(11.7.1977)

Monitor-Bericht über Eurokommunismus 1

(유럽 공산주의에 관한 Monitor 특집), Köln, Mai 1977

